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 “아름답고 매력적인 경관으로 국토의 품격을 높일 것”
-11일 「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시상식」 참석
-삶의 질 높이는 경관디자인 조성에 대한 지속적 노력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11일(목)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‘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’ 행사에 참가했다.
 - 김 장관은 우수한 경관·디자인 조성에 힘쓴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상 등을 수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국토경관 조성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.
 - 이날 행사에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,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에 기여한 지자체, 민간 및 정부 산하기관 등 총 9명에게 정부포상(2명)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(7명)을 수여했다.
- 김 장관은 치사를 통해 “수상작들의 공통점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이지만,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고유한 경관으로 재창조해냈다는 것”이라며 이번 국토대전을 통해 발굴한 수상작들에 큰 의미와 고마움을 표현하고,
 - “앞으로 정부도 이 같은 우수사례들이 더욱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토가 품격을 더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이번 국토대전에는 ‘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’(국토교통부 장관 표창(2명)) 시상식도 함께 열려 ‘대한민국 국토대전’이 우리나라 경관디자인 분야의 최고 행사로서 그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.

2019. 7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